

창조적 도전과 화합으로 힘차게 도약하는 원광대병원

밝고 희망찬 2016년, 병신년(丙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진취적인 도전과 지혜, 그리고 화합을 상징하는 붉은 원숭이의 해입니다. 교직원 여러분 모두 새해의 상서로운 기운을 받으셔서 뜻하시는 일 모두 다 이루시고, 가정에는 건강과 행운이 가득한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친애하는 교직원 여러분!

대망의 2016년,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이 자리를 빌어 지난해 교직원 여러분이 보여줬던 노고와 성과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말 우리 병원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가장 열악한 조건인 우리병원이 권역외상센터에 선정 되었고, 연이어 닥터 헬기사업 유치, 권역응급센터에 선정되었습니다. 전북금연지원센터 또한 우리병원에 지정되어 현재 특성화된 전략으로 모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병원이 각종 공공의료사업에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준 결과였고, 저력을 보여주는 쾌거였습니다.

그동안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교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병원은 지난해 메르스 사태를 통하여 의료인으로서의 소명의식이 살신성인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음을 지켜보면서, 병원장으로서 감사한 마음을 무어라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저 스스로도 의사로서의 소명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우리병원도 구성원들의 정신적인 면뿐만 아니라 병원 자체적으로도 감염예방에 큰 경험과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우리병원은 국제진료협력센터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도 미군 환자 유치와 더불어 몽골, 카자흐스탄, 러시아 등 동부 유럽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몽골 현지에서, 그동안 우리 병원에서 수련을 거쳐 간 몽골의사와 간호사 등 100여명이 모여서 동문의 밤 행사를 하였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와 성과를 확인하는 좋은 자리로 우리 병원의 성과를 넘어 민간외교의 모범을 보여준 자리였습니다.

친애하는 교직원 여러분!

내적으로도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사업 평가에서 3년 연속 전국 최우수병원에 선정 되었고, 고객만족 경영을 위해 전문 코디네이터 양성과 전 직원 교육을 통해 병원의 내적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병원은 지난 3년간 무분규로 노사관계에서도 모범이 되었습니다. 이는 노사간에 진정성 있는 대화와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확인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올해도 원광대병원은 노사관계의 모범이 병원발전과 환자들에게 좋은 병원이라는 등식이 성립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에 시행된 직원 해외 연수와 국내 테마 여행의 반응이 매우 높았습니다. 조직에 대한 주인 정신 함양과 힐링을 통한 새로운 조직 문화를 위한 사업은 올해도 더욱 확대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교직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원광대병원이 열악하고 급변하는 지방 의료상황에 또 하나의 모범으로 그리고 중심으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원광대병원은 이미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불황과 지역의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한발 한발 발전을 하고 있고, 국책사업 불모지였던 사립대 병원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시작으로 권역외상센터, 닥터헬기, 권역응급센터, 금연지원센터 등 기적 같은 일 들을 현실로 만들며 우리는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올해 개소를 목표로 추진 중인 권역외상센터와 권역응급센터, 닥터헬기 사업이, 우리 교직원들에게는 또 다른 고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동안 어려울 때 일수록 더욱 단합하고 희생했던 저력이 있습니다. 또한 지역적 한계로 인한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 보다 많은 도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는 긍지와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한 우리 원광대병원의 위상도 한층 더 높아 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달성하기까지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도전과 난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험난한 파고를 헤치고 미래로, 세계로 도약하는 원광대병원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전 구성원의 단합된 의지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친애하는 교직원 여러분!

2016년 새해를 시작하며,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2016년에도 지속적으로 고객만족과 환자 중심의 병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자에게 다가가는 병원, 환자에게 최선을 다하려는 구성원들이 되도록, 저부터 실천하고 독려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최고의 가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병원 정책과 집행도 환자의 안전과 의료 질 향상에 둘 것이며 인사에도 적극 반영 할 것입니다.

둘째, 올해는 권역외상센터와 권역응급센터 시설 신축과 개소가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절약하고 많은 일을 해야 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는 것 보다 내실 있는 운영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병원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금연지원센터, 국제진료협력센터 등 각종 국책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결과로 관계기관들과의 확고한 신뢰를 구축 할 수 있었고, 작년과 같은 결과를 얻었던 것입니다

셋째,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한 교직원들의 다양한 해외 연수와 국내 테마 여행을 통해 하나로 가는 원광대학교병원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우리 교직원들이 병원이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구성원들의 역량이 극대화된다는 경험이 있습니다. 이 장점을 구성원들과 공유하고, 확산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직종 및 부서간의 경계 허물기로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상호 존중과 양보의 조직문화뿐 아니라 직종, 부서 간 다양한 소통과 정보공유를 위하여 관련 부서별 간담회와 회식 등을 적극 지원 할 것입니다.

저는 2016년이 우리병원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2016년 역시 모든 구성원의 소통과 화합, 양보의 주인 정신으로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미래로 향하는 원광대병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도전과 지혜 그리고 화합을 상징하는 붉은 원숭이의 기운을 받아 우리 원광대병원이 힘차게 도약하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성원해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교직원 여러분께 감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원광대병원을, 우리가 그리는 멋진 곳으로 한발 더 다가가게 하는 한해가 되기를 법신불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새해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신 일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새해 아침

원광대학교병원장 최 두 영 합장